



▲ 충남 예산지부 사무실 앞. 우측부터 이상열 지부장, 홍운중 부지부장, 김영만 총무(사무국장), 성실제 AI센터 대표이사, 이경순 간사.

## AI센터 운영과 기자재 공동구매로 이익 제공하는 충남 예산지부

취재 : 정재은, 오유환

충남 예산지부(이상열 지부장, 만 54세)는 AI센터 운영과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고 있다. 또한 회원들간의 결속력이 좋아 지부행사 등 모든 활동에 있어 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노력하는 단합된 지부이다.

예산지부는 예산 지역의 양돈농가들이 1988년 11월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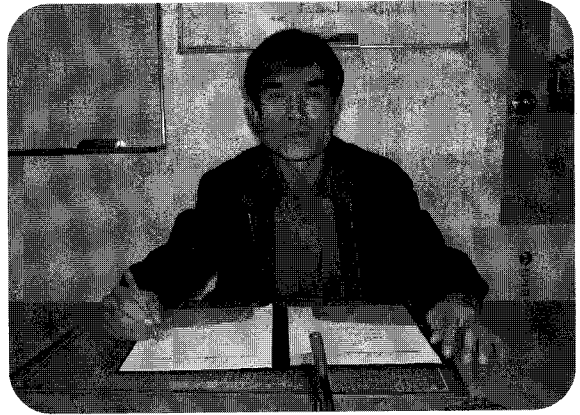
산업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이상열 지부장을 중심으로 김영만 총무(사무국장), 이경순 간사와 전 회원들이 힘을 합쳐 예산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예산지부는 현재 이상열 지부장, 홍운중 부지부장, 김영만 총무(사무국장), 이준원, 김동협 감사 2명, 성실제 AI센터 대표이사, 임준기 운영위원 등 7명을 포함해 총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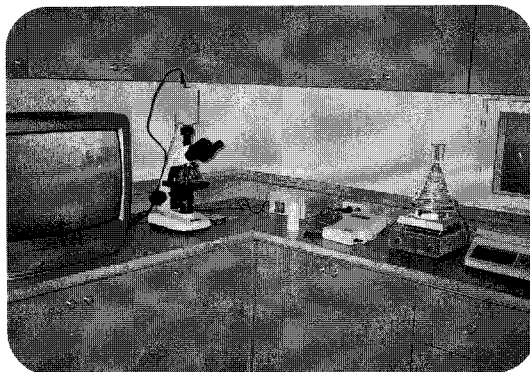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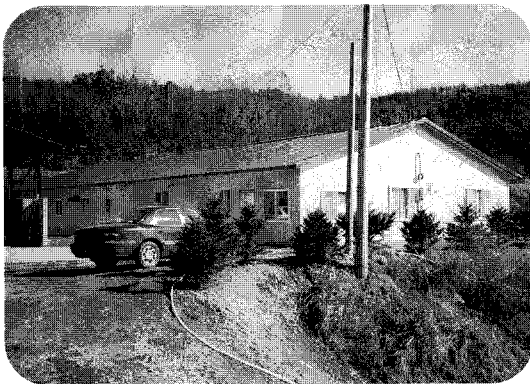
의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양돈 관련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이익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지역에는 208개의 양돈농가가 총 15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60여 농가가 지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부 회원들이 전체 사육두수의 약 85%수준인 약 13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회원들은 1만2천두 규모의 농가를 비롯해 평균 2천여두 정도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0두 이상의 전업규모 사육 농가가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충남 예산지부 이상열 지부장. 지역내 쌀 작목반과 액비를 활용한 친환경 무농약 무비료 쌀 생산에 기여한 이상열 지부장은 지난 10월 25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결의대회 때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예산지부는 자체적으로 AI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지역 양돈 농가의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 돼지고기 품질 향상, 질병 전파 방지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부에서 기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 AI 센터 운영으로 우수한 품종의 돼지 생산

예산지부는 지난해 AI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우수한 정액을 양돈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품질이 뛰어난 규격돈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AI센터의 우수한 정액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예산지부는 자체적으로 AI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지역 양돈 농가의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 돼지고기 품질 향상, 질병 전파 방지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성실제 예산 AI센터 대표이사는 “2003년의 경우 회원 총 33농가에 월 1800보를 공급하여 100% 수정에 성공하였다.”며, “양돈농가의 수태율과 산자수 향상의 성과를 보였으며,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AI센터에서 고능력 웅돈의 정액을 예산지부 회원들에게 일괄 공급함으로써 돼지의 품종 균일화를 이루었다.

한편 예산지부는 이렇게 품종의 단일화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품’자 마크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 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항생제 투여와 규산업 제제를 이용한 청정돼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성실제 AI센터 대표는 “청정돼지의 경우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강화되어 브랜드육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활발한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으로 이익 제공

예산지부는 각종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이 양돈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부에서 기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모든 밥통, 스텐포유기, 자돈 건식, 습식포유기, 램프, 할로겐 등 등 대부분의 기자재를 구매하여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 놓고 있



▲ 예산지부 이상열 지부장과 김영만 총무

다. 또한 예산지부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에 돼지콜레라 백신 뿐만 아니라 사료 첨가제, 생균제 등을 공동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들에게 비용절감의 효과를 주며,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

예산지부는 회원들로부터 월 3만원의 회비와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회비 및 자조금을 100% 완납하며, TV홍보비도 납부하는 등 경영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열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지부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지부는 매일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양돈산업 당면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월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원들은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 예산지부에서 기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 돼지고기 시식회를 매년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2002년 4월 매현문화제 때 개최된 시식회 행사.



▲ 2003년 10월 22일 충남도민체전 때 개최된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 좌측부터 김진환 전지부장, 이상열 지부장, AI센터 성실제 대표, 김영만 총무, 이강영 회원, 채수영 회원, 정낙복 회원.

통해서 방역, 경영, 분뇨처리와 주요 현안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각종 단합대회와 시식회 행사 전개

예산지부는 매년 춘계, 추계 2번의 야유회와 가을 체육대회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있다. 또한 단합대회나 공동참여 행사시 참석률이 좋고, 회원들끼리 화목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 시식회를 매년 개최하여 일

반인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돈산업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불우 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양로원 등 독거노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전달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다.

## ■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타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어

예산지부는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질병 방지를 위해서 군과 연계하여 철저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예산지부는 '예산 양돈방역단'을 설치 운영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산 지역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방역교육과 방역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어 방역이 생활화 되어 있다.

특히 이상열 지부장은 "예산지부의 경우 AI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어 외부에서 중돈을 분양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라고



▲ 충남 예산지부 이경순 간사

강조했다.

예산지부 회원들은 평상시에도 개인 소독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 1회 정기 소독의 경우 예산지역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소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철저하고 계획적인 방역활동은 양돈 방역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도내 다른 지부에서 시찰을 올 정도라고 이상열 지부장은 말한다.



▲ 예산군 축산회관 조감도

## 액비센터 운영으로 분뇨 처리

예산지부는 양돈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분뇨 처리를 위해 액비센터 운영과 분뇨 수거차량 운반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분뇨를 해결할 때보다 비용절감이 이루어져 양돈장을 경영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분뇨수거 운반차량 3대를 확보해 회원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250톤 규모의 액비탱크 36기를 가동하고 있다. 예산지부 회원들은 순번제로 액비센터의 차량을 운행하며, 대술농협 쌀 작목반 30여 농가와 신양 귀농학교 30여 농가에 액비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 예산지역 축산회관 건립

예산지부는 2003년 3월부터 축산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3년 11월 22일 준공을 하였다.

이상열 지부장이 축산회관 건립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양돈, 한우, 낙농, 육

우, 양계, 양봉 등 축산업 관련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축산업에 관련된 공동현안들에 대해 함께 대처하고 정보를 교환해 나가는 장이 될 것이다.

## 자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예산지부는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수행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양돈인들의 힘이 결집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만 사무국장은 “예산지역내 액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양돈인들의 고민은 분뇨처리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및 양돈협회가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양돈농가의 숙원사항이었던 양돈자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양돈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돈**